

---

# 2021년 제47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1. 19. ~ 11. 2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11.19	시청률	0.000

## 【총 평】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기지개를 켜는 지역 예술가들의 움직임을 조명하고 서울 백사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소개했다. '오래 기다렸어요. 독일, 한국 문화 행사 인기'는 다양한 한국 문화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일 베를린 시민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주 독일문화원의 노력을 잘 담아냈다. 또 '비대면 시대 속 대학가 메타버스 문화 확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메타버스를 소재로 하여 소구력을 높였다.

이 밖에 '전통 추수 감사 의례 올벼심니 재현 눈길'은 함께 농사를 지었던 이웃 간의 전통 풍습인 올벼심니를 재현하여 여운을 남겼다. '노후 공공건축물에 환경을 입히다'는 지은 지 오래된 유치원과 경로당을 친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 ■ 지역 작가 기지개, '예술 체험 행사' 호응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작가들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광주시 광주천에서 열린 예술 체험 행사를 소개했다. 광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업서를 색칠하는 광주천 컬러링 체험 행사, 친환경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원 책방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 ■ "오래 기다렸어요." 독일, 한국 문화 행사 인기

독일문화원에서 열린 '아이러브코리아 오픈하우스 데이'에서 선보인 가야금 연주와 달고나 만들기, 공기놀이 등 전통 문화 체험을 즐기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서예, 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 ■ 비대면 시대 속 대학가 '메타버스 문화' 확산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메타버스 문화에 대해 조명했다.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비대면으로 축제를 여는 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교 등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을 소개했다.

### ■ 전통 추수 감사 의례 '올벼심니' 재현 눈길

전남 광양시에서 추수 감사 의례인 '올벼심니'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벼를 털어내고, 낱알 껍질을 벗기기 위해 절구질을 하고 키질을 하며 직접 체험해본다. 또 올벼밥을 나눠 먹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 ■ 노후 공공건축물에 '환경'을 입히다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발전 설치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을 30% 이상 높이고 실내 공기질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그린 리모델링은 올해 서울시 어린이집 60곳과 경로당 12곳에서 진행 중이며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1. 19.	시청률	0.000

### 【총 평】

‘혁신적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의 혁신방안’편에서는 청년인재들을 개발하고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특히 획일적 학습보다 맞춤형 학습체계로 전환하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모든 인재들이 신기술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자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의 교육수준이 높지만 현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문제점을 짚어주었다. 이에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교육 형태를 변화시키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WE(Work Experience)-Meet 프로젝트는 대학에서 1~2학년 진로설계 및 직무 탐색, 3~4학년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4학년과 졸업생은 취업연계 등 구체적인 방안이 주목을 끌었다.

### 【구성 및 내용】

정부는 2021년 4월에 발표한 ‘Big3+AI 인재 양성 방안 발표’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중점으로 제20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유연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021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자하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 모든 정책은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다. 이번 정책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에 비해서 신기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은 대학 교육의 경직된 형태 때문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아야 한다. 학과 체계 역시 산업화 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신기술 분야의 교육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대학교육을 유연화하게 하여, 대학 설립 및 요건을 자유화했다. 학과 역시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학과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맞는 학과 개편을 지지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했다. 첨단 분야의 석, 박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대학원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청년 취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방안은 대학에서도 의무적으로 진로 교육에 혁신적인 방안을 구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거기에 맞는 기능 교육을 연계하여 대학의 저학년 때부터 앞으로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최소한의 디지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전 대학에서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1. 19.	시청률	0.007

### 【총 평】

‘4대 손맛, 술 빚는 마음 - 강원도 정선’편에서는 풍류의 고장 강원도 정선에서 4대째 전통 막걸리 주조의 가업을 잇는 모자의 훈훈한 스토리가 방송되었다. 특히 주인공의 술을 대하는 마음, 모자의 가업 전수, 전통주의 명맥을 잇는 가치 등을 전달했다.

전통주와 가업을 멀리하는 세대 속에서 모자가 수대 째 내려온 막걸리의 맛을 이어가는 스토리가 감동으로 다가왔고 정선의 물맛, 옥수수 등 특산물로 빚어지는 막걸리를 통해 관광의 고장 정선지방을 재조명한 내용이 흡인력을 높였다. 이 밖에 양조장의 자랑으로 정선의 농가에서 직접 수급한 옥수수를 곱게 갈아 넣고, 깊고 구수한 맛이 전해지는 정선의 옥수수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달되었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에는 막걸리를 빚는 양조장이 있다.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3대째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은 이곳으로 시집을 와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막걸리가 이제는 그녀의 삶이 되었다. 주인공은 막걸리를 숙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최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양조장은 밀가루 막걸리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술도가로 시아버지 때부터 사용하고 있던 도구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밀가루 막걸리의 재래식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50년 된 채에 찐 밀가루를 고르며 정성을 쏟는다. 채에 거른 밀가루를 보쌈(상자에 넣어 천을 덮는 과정)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나와 상차(소나무 상자에 옮기는 과정)한다. 포장에서 운반은 기계화해 맛은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였다. 주인공은 새벽에 출근해 입국(균이 더해진 곡물에 효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을 위해 밀가루 상차 작업을 한다.

어머니의 대를 이어 4대째 양조장의 가업을 잇는 아들이 새벽부터 정선 곳곳을 돌며 막걸리를 배달하며 영업하는 일상이 뿌듯함으로 전달되었다. 아들도 양조장에 출근해 배달할 물건을 정리하고 배달에 나선다. 아들은 거래처 냉장고까지 정리하며 막걸리 홍보에 여념이 없다. 오후가 되면 주인공은 만들어 놓은 밀가루 막걸리를 탱크에 붓고 숙성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옥수수막걸리의 원료인 말린 옥수수를 수매하기 위해 농장을 찾는다. 주인공이 처음 배울 때는 하루 한두 시간씩 자며 일을 배웠다.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양조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들은 술을 판매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있다. 주인공은 술을 잘 못하지만 막걸리를 만들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행복하고 고맙다.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전통방식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 밖에 막걸리의 성공 비결 소개로 자영업자들에게 비법을 제공하고 지역특산품의 가치를 드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1. 20.	시청률	0.016

### 【총 평】

“폐광촌에 마을호텔을 만들었습니다”편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주민들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현장을 소개했다. 특히 폐광촌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중심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곳은 폐광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마을은 빈집이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호텔과 사진관도 생겼고, 소박하지만 흥을 돋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 고한리 18번가는 마을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방문하고 있다.

### 【구성 및 내용】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탄광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가 폐광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위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을호텔과 마을미술관 개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구 덕분에 길가의 개도 지폐를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는데, 폐광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낙후된 마을에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진용 씨는 고향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어서 고한리로 이사를 결정했고 빈 상가를 사서 깨끗하게 수리한 후 출판사를 차렸다. 유영자 이장과 함께 본격적인 고한리 살리기를 시작했다. 봉화에서 시집와 45년을 고한에서 살아온 유영자 이장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25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기증해 식당은 마을 호텔로 변신했고, 이 호텔을 중심으로 고한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진용 씨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동네 골목길을 가꾸기 시작했고 골목의 낡은 집 서른 채를 멋들어지게 단장해 마을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재개발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선택한 것으로, 잘 가꾸어진 450m 길이의 골목은 대한민국 최초의 마을호텔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앞으로 마을호텔을 고한 마을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고한읍의 20개 마을로 연결 확장하여 고한읍 전체를 호텔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로이 수리된 집에는 QR코드를 만들어 각 집의 옛모습을 보여주며 스토리텔링도 만들었다. 마을호텔 18번가는 2021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자 타지에서 이곳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며 견학을 많이 온다. 자부심과 행복을 누리게 된 고한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리틀 포레스트를 가꾸고 있는 젊은이 이해진 씨는 3년 전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고한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웃주민들의 사진을 찍으며 고한의 기록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한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고한리 18번지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한민국 최초의 마을 호텔’이라는 멋진 수식어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1. 21.	시청률	0.164

### 【총 평】

‘친북’에서는 35일 만에 공개활동이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의도, 삼지연 방문 의미, 가족 룡 코트를 입는 이유, 지난 7차 당대회에 8차 당대회의 차이점과 김정은 독자체제 구축 등에 대해 전했다. 이 밖에 삼지연에 다녀오면 큰 결단을 내린 전력에 비춰 백두산 구상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 기획이 유의미했다. ‘이슈텔링’에서는 평양 MZ세대의 핫플레이스와 달라진 문화를 살펴보고 북한문화를 편견을 갖고 보지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 문화와의 차이와 공존, 소통의 메시지를 제기했다. 또한 북한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청년문화에 대한 단속일변도에서 북한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만의 독자노선을 가기 위한 여러 행보를 심층 진단했는데, 2016년 7차 당대회 배경으로 있었던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없어진 걸로 보아 ‘김정은 주의’의 독자노선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건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35일 만에 삼지연 건설현장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다. 12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지 10년 되는 날이지만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대북제재, 경제난 심화,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삼지연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지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지인 삼지연을 방문한다는 건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위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을 찾을 때마다 큰 결정을 해왔다. 이번 삼지연 방문도 새로운 북한의 체제 변화를 구상해 집권 10년 기념일이나 내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 MZ세대가 즐기는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은 일상을 통제하는 국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일상을 무조건 통제하지는 않는다. 볼링, 놀이동산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 심지어 이혼도 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 등 남녀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지 당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며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북한의 젊은 층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식 호칭을 따라 하기도 하고 외국 문화도 거침없이 수용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오빠’ 등의 한국식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음식점에 동무, 동지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권고가 붙어있다고 전했다. 남한과 북한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공존, 소통의 메시지를 제기한 기획이 돋보였으며 북한의 문화를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 역시 편견 없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11. 21.	시청률	0.123

### 【총 평】

‘끈대할매보다 더 기가 센 여성 등장’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혼 사유와 최악의 이혼 사례,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조언 등을 살펴보았다. 두 아이를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사법 시험을 준비해서 6년 만에 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혼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 지위 변화 그리고 이혼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려서부터 타고난 언변에 논리로 무장한 변호사의 입담에 끈대할매의 말문이 막히는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져서 흥미로웠다.

### 【구성 및 내용】

‘끈대 할매 VS 기센 변호사’ 편에서는 강력한 언변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끈대할매와 막상막하의 기싸움을 보여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소개됐다. 출연자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사법 시험을 준비해서 6년 만에 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어 우연한 계기로 KBS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자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된 이유를 물으니 살림하기가 싫었고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만회하자고 한 결정이 변호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에 대한 끈대할매와 신 변호사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졌는데, 외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도 한 번은 용서하겠다는 끈대할매와 자신의 의견보다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용서가 안 되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출연자의 입장 차이를 전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제고했다.

‘사랑과 전쟁’편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을 소개했는데 출연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까지의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경제적인 사유, 즉 빚이 많은 것이 이혼 사유 1위라고 소개했다. 또 젊은 층은 경제적 문제로 노년 층은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전했다.

최악의 이혼 사례로 40대 덩크족 부부의 이혼을 꼽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덩크족으로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의 강력한 이혼 요구로 인해서 협의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오랜 친구와 불륜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된 아내가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이 참작돼 분배가 되는데 기여도는 결혼 연차, 자녀유무, 유책 사유 등으로 나뉘게 된다는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끝으로 결혼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결혼관계증명서와 부채 증명서를 반드시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결혼이라는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전문가를 통해 전해져서 매우 유익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1. 21.	시청률	0.063

### 【총 평】

‘5G 미래 기술의 출발점’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 핵심 인프라인 5G의 개념과 특성, 기술경쟁력, 4차 산업혁명 기대효과,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거쳐 6G 시대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5G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나의 뉴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본 내용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가져올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와 남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했다. 이 밖에 5G 기술 관련 장비와 콘텐츠 등을 수출하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담아냈다. 또한 5G 관련 산업이 미래 기술 선점하는 것을 넘어 문화콘텐츠를 주도할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 【구성 및 내용】

5G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열쇠로서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한다. 휴대폰을 넘어서 더 이상 이동통신이 아니라 모든 객체를 연결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5G로의 변화는 기존 4G에 비해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5G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초연결, 초저지연으로서 모든 객체를 연결하기 위해 연결 범위를 늘리고 지연 속도를 감소시켜 산업의 대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5G를 통한 일상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스마트폰만을 위한 통신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위한 통신기술이다. 아직은 스마트폰 활용의 고도화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플랫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근무환경이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비고정적 업무공간에 따른 5G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직은 IoT 산업이 초기단계지만 5G를 통해 일상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5G 기반의 뉴미디어는 홀로그램 등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에 있어 5G는 필수적 인프라다. 빅데이터 연결 사회에서 5G 기술은 빠르고 실시간으로 지연시간 없이 많은 사물을 연결할 수 있다. 5G, 클라우드 기술 접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성에 있어서는 AI 데이터 학습시 대용량, 빠른 연결에서 5G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5G가 갖는 의미는 첫째, 항상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 정보를 올리고 받아 멀티미디어로 가고, 가상세계로 가는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다. 둘째 모든 산업의 연결로 볼 수 있다.

현재 전세계는 6G 상용화의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다. 6G 시대의 경우 한국은 통신 강국으로써 이동통신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더불어 위성을 이용한 공간통신의 활용이 요구된다. 5G 유선망의 확충과 더불어 5G 주파수 영역의 상용화 방법과 범위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5G 서비스의 독자적 구축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한편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5G망의 확대를 통한 도심과 교외의 정보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안정적 연결을 위한 낮은 주파수 영역 대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1. 21.	시청률	0.000

### 【총 평】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미와 실천 가능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감축 공식화를 선언했는데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인정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표현해 주목도를 높였다. 탄소 중립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경기도 화성시의 정책을 소개했는데, 무상 교통을 운영하여 어린이, 청년,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가용 이용 시보다 7배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 인상 깊었다.

### 【구성 및 내용】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협약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환경 운동가인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메탄가스 관련 패널 토론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회의장 바깥에는 오징어 게임을 활용해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게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정상 회의에는 130여명의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는데, 이번 회의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블랙핑크는 '기후 변화는 범지구적인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전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막을 절실한 대응을 호소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또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되살리는 일을 추진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기후변화 해법을 시민과 함께 찾으려는 지자체로 소개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걷거나 달리면 그린헬스 포인트가 적립되어 목표를 달성하면 지역 화폐로 지급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또 화성시는 어린이, 청년,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무상 교통을 소개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자가용 이용 시보다 7배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전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번 회의의 성과로 최종 성명에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다는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은 국제사회 현안에 우리나라의 입지를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